

# ‘길 위의 만남’ 상생 해법을 논하다

## 도법 스님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담



선을 다해 위기를 극복할 것이다. 서울시 전체 예산의 약 23%가 올해 복지 예산이다. 저소득, 장애인, 어르신, 아동, 청소년, 그리고 여성이 대상이다. 저소득층을 향한 ‘희망드림프로젝트’와 ‘희망플러스통장’ 사업과 노숙자 자활을 위한 ‘희망의 인문학’ 코스를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 #공존

무한 경쟁으로 황폐한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화두는 ‘공존’이다. 도법 스님은 <생명평화의 경>을 통해 너와 내가 운명공동체라고 말한다.

스님은 “어려운 상황에 놓인 개인에게 삶을 주체적 의지로 살고자 하는 의욕 확립 작업이 중요하다. 현대인은 이치에 무지하다. 경제가 삶의 관점에서 해답은 아니다. 사람들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해답이다”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우리 사회가 그런 면에서는 진보하고 있다. 자선 모금액이 작년보다 오려 늘었는데 기업의 목돈보다 개개인의 찜짓돈이 모여서 만든 액수다. 스님이 말씀하신 신뢰나 희망을 만들어가는 사회의 예고다. 정책자 입장에서 그런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되도록 긍정적으로 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스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핵심이다. 한 가지 축이라는 공동운명체적인 인식과 믿음이 필요하다. 인위적으로 조작된 것에 매몰된 현대인은 삶을 모색하기 힘들다. 종교인과 지식인 등 사회 지도자들의 모범이 필요하다”고 말을 이었다.

### #비움

세상이 어지러운 원인은 마음속의 탐욕, 분노, 어리석음 때문이다. 욕심을 거둬 존재의 실상을 드러내는 작업이 중요하다.

오 시장은 “과거 서울시는 ‘소리없는 아우성’이었다. ‘디자인 서울 프로젝트’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문화 예술에 맞춘 도시 계획이다. 그 목표가 비워낸



다, 통합한다. 더불어 살 수 있는 디자인을 한다’는 것”이라 말했다. 이에 스님은 “비움이란 비우려고 해서 비워지는 것이 아니다. 구체적인 사실과 진실을 볼 때 비로소 우리가 비우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 서울시가 그런 비움의 자세로 정책적 구상을 한다니 놀랍다. 시민들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자연, 이웃과 함께 공동운명체의 동반자라는 인식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자각할 때 시장님이 희망은 현실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 #희망

인연의 고리를 잘 풀아가는 것, 결국 사람이 희망이다.

“희망은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라는 도법 스님의 말에 오 시장은 “창의시정의 목표는 ‘시민고객의 행복을 위해서 일한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업무를 전부 시민고객의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하고,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것이다”고 화답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와 함께 다시 일어서는 2009’를 모토로 국민극복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다짐했다. 스님은 “시장님은 시민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일한다면 종교에서 추구하는 ‘자기완성과 사회완성의 실현’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내 인생은 내가 산다는 확신으로 인생을 바라본다면 삶은 더 풍부해진다. 스스로 삶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당연한 주체가 되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가연숙 기자

매서운 경제 한파에 웃음을 머미는 겨울의 종막. 1월 17일 서울 성북동 소재 전동초등학교 수련관에서 특별한 지도자들의 만남이 진행됐다. 5년간 탁발순례를 통해 상생·평화의 법음을 전파해온 도법 스님과 생활시정을 통해 시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서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담이 마련된 것. 스님에게 길이란 구부러진 것. 스님에게 길이란 구부러진 것. 서울시장에게 길이란 현장에서의 정책이다. 이주환 교수(수원대 인문대) 사회로 3시간 동안 진행된 대화 속에서 공감이 만나는 선재의 길을 동행해왔다. 이날 대담은 IPTV-메가TV(CH505)에서 26일 오전 9시, BBS불교방송 라디오(FM101.9)에서 오후 6시 방송됐다.

### #만남

개인이 극복할 수 있는 경제위기 해법에 대해 도법 스님은 “삶의 방식을 재정리할 때 불안은 사라진다. 현장을 순례하면서 ‘경제만이 희망이다’라는 논리가 현장에 적용될지 지켜보니 불안은 정점에 치달았고, 기존의 경제 논리는 삶의 문제에 해답을 줄 수 없다는 실례가 됐다”고 말했다. 스님은 “경제만이 살 길이라는 환상 논리에서 벗어나야한다. 농촌에는 사회적 파동에 휘둘리지 않고 삶을 주체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 삶과 사회 문제에 대한 가치 의식을 재정립하고 경제문제를 다룰 때 바람직한 답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정책자 입장에서 최

# 2009년은 ‘포교역량결집의 해’

## 포교·신도단체 임원대회서 정책 공유 사업교류 다짐

포교·신도단체들이 올 한해를 ‘포교역량결집의 해’로 선포했다. 1월 17~18일 속리산 유스호텔에서 열린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 주최 포교신도단체임원대회 참석자들은 2009년 포교원의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산하단체간의 사업교류를 다짐했다.

이번 포교대회에는 노현 스님(법주사 주지), 웅산 스님(수덕사 주지)을 비롯한 현직 포교원 소임을 맡은 스님과 중앙신도회 김의정 회장, 포교사단 강홍원 단장 등 포교원 산하 40여 단체 및 회원 350여 명이 참석했다.

포교원장 혜총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불교의 모든 포교역량의 교류와 결집으로 불교도를 향한 새로운 포교의 도약”을 선언하고 “부처님이 증생에게 자비를 베풀듯 불교



1월 17~18일 속리산 유스호텔에서 열린 포교신도단체임원대회에 참가한 40여 포교·신도 단체는 올 한해를 ‘포교역량결집의 해’로 선포했다.

신자들은 지혜를 닦아 서로를 탐하며 이웃을 위해 베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포교원은 지난해 포교에 앞장선 류재환 전국불교인불자회장, 이기홍 체육인불자회장, 양춘동

산악인불자회장, 파라미다, 교정인불자회, 수덕사 교구 신도회에 개인 및 단체 표창을 수상했다.

이 자리에서 포교원은 ‘포교는 희망입니다! 2009 포교역량결집의 해!’라는 슬로건을 세우고 포교원

주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포교원은 △8월 포교결집대회 봉행 등을 통한 포교역량 결집 △어린이 청소년 포교총합>발간과 중년차원의 어린이 포교 전담기구 구성으로 어린이청소년 포교 3개년 사업완료 △중년 차원의 특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로 핵심적 신도 발굴 양성 △선수행 대중화 인력양성과 포교 프로그램 개발 등을 주요 사업계획으로 세웠다.

이어 단체별 포교사업 발표를 통해 각 포교신도단체가 사업계획을 교류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둘째 날 ‘포교활성화 방안’에 대한 특강에서 포교부장 계성 스님은 “포교결집대회의 봉행, 1080명의 불자가 100만원씩 후원하는 포교후원기금마련, 전국불자중소상공인회 결성, <어린이불교입문>에 이어 <청소년불교입문>을 발간으로 포교활성화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연 기자 un82@buddhapia.com

### 대불청 제25대

#### 정웅정 회장 취임

대불교청년회(이하 대불청) 제25대 회장 취임식이 1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봉행됐다.



신일 정웅정 회장(사진)은 취임사를 통해 △2020년 통일한국 최대 청년조직 건설 목표를 결맞게 자력 경쟁의 노력 △‘청소년 재단’ ‘자원봉사센터’ ‘통일추진위원회’ 등을 통한 사회에 공헌 △(사)만해리더십센터를 설립해 불교정신과 청년지도자 양성 교육과정 마련 △불교에 대한 정치적 차별과 억압에 대처를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청화 스님(조계종 교육원장), 혜총 스님(조계종 포교원장), 진관 스님(불교인권위원회), 원희룡 국회의원(한나라당), 최문순 국회의원(민주당 연동회장) 등 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이상연 기자

### 대구 동화사 ‘선’체합관 조성

대구 동화사(주지 허운)에 선을 직접 체험·수련할 수 있는 4628㎡ 규모의 선원이 조성될 전망이다. 동화사는 1월 22일 대구 동구청(구청장 이재만)과 ‘국제관광선원 조성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제관광선원 조성사업은 2010년까지 사업비 110억원(국가지원 50억원, 대구시 지원 5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 대구의료원 ‘2009 환우들과 함께하는 설날 한마당’

#### 범등회, 1월 17일 라파엘 월빙센터 로비서 행사

대구의료원 불교선행단체 범등회(회장 박진희)가 1월 17일 명절 설을 앞두고 병원 입원환자들을 위한 어울림 한마당 잔치를 열었다. 의료원 라파엘 월빙센터 로비에서 열린 행사에는 현악4중주, 마술, 무용 등 다채로운 공연으로 환자를 위로하고 희망을 전했다. 또 범등회는 병원

발전에 힘쓰는 이등구 대구의료원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대구의료원 범등회에 부처님 점안식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성다 스님(불국사 주지)과 현관 스님(동화사 부주지), 정법 스님(범등회 지도법사), 이흥근 신부(천주교 대구 대교구) 등이 참석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 신행계시단

●김천 선정사 ‘선정산매수행’=미언파 수행정 선방 일기 <구름을 헤치고 나온 달처럼> 저자인 정명 스님이 지도하는 선정산매수행이 2월 13~17일 김천 선정사에서 열린다. 아나베나사대(호충관찰명상)를 이용하여 색계선정에 드는 방법을 익히고 매일 저녁법문을 통해 초기불교수행법을 듣는다. 참가비는 자율보시이며 선착순 8명 접수. (054)434-9090

●아행요가센터, 서울·대구 요가무로공개강=(사)아행요가협회는 2월 7일 오후 2시 서울 아행요가센터에서, 2월 8일 오후 2시 대구 본원에서 아행요

가 무료 공개 강의 및 출판 시사회를 실시한다. 한편 2월 12~15일 비구스님, 2월 15~18일 비구니스님을 대상으로 대구 청량선원에서 요가 특강을 진행한다. 참가비는 7만원. (063)981-3553 www.yogar.co.kr

●강화 연등국제선원·서래선원 월아법회=강화 연등국제선원은 매월 1째주 토요일 3번째 기도를, 2째주 토요일 서래선원에서 월아법회(법회)를 봉행한다. 매월 4째주 월-금요일은 서래선원에서 영화미술 전시프로그램, 4째주 토요일 고경선원에서 농업주독송과 아비라 기도를 진행한다. (032) 937-7033

# 황우석 박사에 대한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출가공동체 총동림동문회” 성명서

하나. 우리 ‘총동림동문회’는 2006년 1월 10일 서울대조사위의 발표를 부정한다.

2006년 1월 10일 서울대조사위의 정명회 교수는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황우석 박사의 1번줄기세포를 보고서와 달리 처녀생식으로 발표하고 황우석을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시키는 절차를 밟는다. 이는 곧 황우석의 원천기술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으며 사기꾼으로 몰아 세계 생명공학계에서 생매장을 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불수가 있다고 본다. 이후 정명회 교수는 그 발표가 잘못되었다고 추적60분 기제 세튼은 특허를 노렸나? 편에 인터뷰를 하게 되지만 그 역시 방송 발발로 국민의 알권리는 음지로 묻히게 된다. 2009년 1월 현재까지 황우석의 공판은 벌써 31차까지 진행이 되고 이 31차 공판에 정명회 교수가 증인으로 채택되어 법정에 출두해야 하지만 정명회 교수는 이를 거부하고 법원의 증인출석 요구를 무시하여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다. 이에 담당 판사는 32차 공판에 정명회 교수를 강제구인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정명회 교수는 1번줄기세포가 처녀생식이라고 조작발표한 사실이 두려워 법원 출두명령을 무시한듯 싶다. 정명회 교수는 법원에 출두하여 진실을 밝히고 국가와 국민 앞에 그 잘못을 시인하고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다.

둘. 국가생명윤리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황우석 박사의 국내연구를 하루 속히 재개시켜줘야 한다.

2008년 8월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생명윤리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건복지부에 황우석 박사의 국내연구를 허락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의견에 따라 황우석 박사의 국내연구 승인을 불허하고 만다.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위원들의 성향은 일부 종교의 편향적인 시각에 그 포커스가 맞아있다고 볼 수 있다. 체세포핵이식 과정 자체가 그들이 믿는 신적존재의 절대관능에 대한 도전이라는 관점으로 보고있기 때문인 것이다. 가톨릭이 국교인 스페인은 현재 막대한 연구자금을 투입하여 이 체세포핵이식을 이용한 줄기세포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연구가 신에 대한 도전이라면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 연구자금을 포기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와 정반대로 일정한 연구성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것은 향후 막대한 국익이 걸려있는 연구이고 이 줄기세포연구를 세계시장에서 선점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법정에 재판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황우석 박사의 연구를 불허한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지만 “형사피고인은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 제27조 제4항의 의거 보건복지부는 이제라도 서울대 황우석 박사의 국내연구를 승인하고 국익수호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셋. 검찰은 이 소모성 재판을 그만두고 황우석 박사를 연구실에서 연구에 몰두할 수 있게 하라.

2006년 6월 20일 시작된 황우석 박사의 공판은 햇수로 4년을 끌어 이제 32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다. 처음 황우석 박사가 사리진 줄기세포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였는데 검찰은 역으로 황우석 박사를 공공회령과 사기혐의로 기소를 한다. 이미 법정에서 밝혀진 내용중에 농협과 SK의 후원금은 자발적인 단순한 후원금으로 증인 증언까지 끝났으며 공공회령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다. 그리고 이제는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와 그 원천기술이 없다고 주장하는 검사측은 다시 황우석 박사를 사기꾼 과학자로 몰기 위해 수만은 증인들을 불러 법정에서 세우지만 그 증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증언은 한결같이 황우석 박사의 원천기술을 인정하거나, 황우석 박사 죽이기에 앞장섰던 사람들은 자기 죄를 시인하고 돌아가는 꼴이 되고 있다. 서울대 조사위 위원장이었던 정명회 교수만 해도 법원출두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만 봐도 충분히 그 속내를 짐작할 만한 것이다. 이에 검찰측은 더 이상의 이 황당한 재판을 그만두고 대한민국의 보배 황우석 박사를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는 바이다.

넷. nt-1 줄기세포를 재검증하여 국내연구 승인을 촉구하는 바이다.

충북대 정의배 교수는 “RT-PCR 검사, 리얼타임-PCR 검사, 메틸레이션 검사 결과 줄기세포 NT-1은 핵이식에 의하여 수렴된 한자맞출형 줄기세포가 100% 확실하다”고 입장을 밝혔고 또 뉴욕의대의 박연춘 박사는 “황우석박사의 줄기세포 NT-1은 처녀생식이 아닐 확률 120%입니다. 현재 전 세계가 황우석박사의 시체를 들고 모두 대한민국의 황우석 박사의 프로토콜로 연구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만 사기꾼으로 죽이고 있습니다”하며 현실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다. KBS의 추적60분 문형렬 피디는 방송되지 못한 추적60분에서 ‘부계유전자 발현’이 ‘줄기세포가 맞다’며 그간 취재과정에서 얻은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nt-1의 진실을 알리고 있다. 그렇다면 nt-1이 처녀생식이고 우연한 결과물인가에 황우석 박사의 원천기술을 부인하려는 자들에게 그 망상같은 주장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국제컨소시엄으로 nt-1을 재검증하자는 것이다. 정부와 서울대는 nt-1의 재검증을 통해 황우석 박사의 국내연구를 조속히 승인하고 국제특허를 교부받아 국익수호에 대한 노력을 ‘총동림동문회’는 사부대중과 더불어 이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9년 1월 21일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출가공동체 총동림동문회 일동